

1920년대 전반기 민족성을 구현한 진보적시문학의 사상정서적특징

리 철 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20세기초엽의 우리 나라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고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69페이지)

1920년대 전반기 우리 나라 진보적시문학은 1910년대에 이어 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도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민족시문학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 진보적시인들은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각이 보다 높아진 당시의 현실에 민감하게 따라서면서 일제의 폭압속에서도 민족성이 구현된 많은 우수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 민족성을 구현한 진보적시문학의 사상정서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과 녀을 지켜가려는 의지를 반영하고있는것이다.

한룡운의 시집 《님의 침묵》(1926)중에서 《님의 침묵》, 《당신이 아니더면》을 비롯한 시작품들에는 민족의 녀을 소중히 간직하고 부끄럼없이 깨끗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나가려는 지향이 절절하게 노래되고있다.

시 《님의 침묵》은 서두에서 떠나가버린 《님》에 대한 애절한 추억과 그리움으로 슬픔의 정서를 펼쳐나갔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 감정정서는 《쓸데없는 눈물》만 흘리는것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것인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부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것을 녀려하는것과 같이 다시 만날것을 믿》는다는 굳은 자각과 확신의 정서로 승화되고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돕니다

작품은 련정세계의 애달픈 추억이나 그리움을 벗어난 심중한 의미를 안고있다.

작품에서 시종일관 애타게 그리는 《님》은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이였고 마음속에 간직된 《님의 침묵을 휩싸고도는》 사랑의 노래는 조국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민족적지조였다. 일제가 비록 삼천리강토를 통채로 빼앗고 우리 인민의 모든 민족적인것을 무참히 짓밟았어도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조국의 모습, 조선민족의 녀만은 빼앗을수도 더럽힐수도 없다는 민족적지조, 의지가 바로 형상전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정서적주장이다.

시 《당신이 아니더면》에서는 수난당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면서

떨어야 떨수 없는 조국과의 관계, 죽어도 버릴수 없는 민족의 넋을 지켜가려는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당신이 아니더면 포시럽고 매끄럽던 얼굴에
왜 주름살이 잡혀요
당신이 그립지만 아니더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늙지 아니할테예요

맨 침에 당신에게 안기던 그때대로 있을테예요
그러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라도 당신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당신의 뜻대로만 하세요

나는 곧 당신이예요

작품의 서정적주인공은 변심없는 의리를 지닌 너인이다.

《당신》때문에 《포시럽고 매끄럽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여 늙어가지만 바로 그토록 당신이 귀중하기에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라도 당신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다고》, 언제나 《맨 침에 당신에게 안기던 그때대로 있을》것이라고 토로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뜨겁고 변함없는 마음은 진정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곧 당신》이라는 함축된 고백속에서 절절하게 안겨오는것은 빼앗겼어도 내 조국, 짓밟혔어도 내 민족이라는 애국애족의 정신세계,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국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려는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과 지조이다.

시 《알수 없어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행복》, 《나루배와 행인》, 《백두산을 지나는 나그네》, 《조선아》, 《바위틈의 소나무》, 《조선의 마음》 등의 작품들도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의 넋을 지켜가려는 사상감정을 민족수난의 현실에서 환기되는 가슴아픈 정서를 통하여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시 《백두산을 지나는 나그네》에서는 나라잃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으로 떠나는 슬픔을 민족의 상징인 조종의 산 백두산의 제일봉에서 가슴저리게 토로하고있다.

삼천리를 등지고 백두산을 지나니
아픈 가슴 쓰린 눈물 차마 금키 어려워라
막막한 넓은 천지에 갈곳이 어디런가

제일봉에 높이 올라 사위를 살펴보니
금수초목도 오히려 제곳이 다 있건만
이 몸은 정처없이 살곳 찾아가노라
하늘께 받은 마음 언젠들 변할건가
이 목숨 다하도록 그 마음을 따라서

산이고 들이고 물이고 찾아가보리라

《삼천리를 등지고 백두산을 지나》면서 《아픈 가슴 쓰린 눈물》을 흘려야 하는 처지, 그러나 그 슬픔과 눈물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켜갈 맹세만은 찢기는 가슴속에 굳히고있다. 《정처없이 살곳 찾아》 떠나가도 《하늘께 받은 마음 언젠들 변할》수 있으며 《이 목숨 다하도록 그 마음을 따라서 산이고 들이고 물이고 찾아가보리라》는 토로속에는 어디에 가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조선민족된 자각을 간직하고 살아갈 결의가 비껴있다.

1920년대 전반기 민족성을 구현한 진보적시문학의 사상정서적특징은 다음으로 빼앗긴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이 시기 진보적시문학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슴아픈 현실적요구에 맞게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나라없는 설움, 빼앗긴 모든 민족적인것에 대한 사무치는 애수와 그리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적정서를 통하여 절절하게 구현하였다.

시 《삭주 구성》, 《산》, 《가는 길》, 《금잔디》, 《진달래꽃》, 《춘향과 리도령》, 《3월에도 삼짱날》, 《고향》, 《하늘》, 《꿈》, 《달맞이》, 《넋께》 등 이 시기의 많은 시작품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리
더더구나 걸어넘는 먼 삼천리
삭주 구성은 산을 넘어 룡십리요

...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바로 가있을텐고
삭주 구성은 산너머
먼 룡십리

시 《삭주 구성》에서는 빼앗긴 조국, 떠나온 고향에 대한 뜨겁고도 애절한 사랑과 눈물겨운 그리움의 감정이 생략적이고 향토적인 시적정서속에 노래되고있다.

시 《고향》에서는 이러한 사상정서가 보다 전개되어 흐르고있다.

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나마
사람은 못잊는것 고향입니다
생시에는 생각도 아니 하던것
잠들면 어느덧 고향입니다

조상님뻘 가서 묻힌 곳이라
송아지동무들과 놀던 곳이라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마는
아아 꿈에서는 항상 고향입니다
...

작품에서는 꿈에도 못잇는것이 고향이기에 《죽어서 뉘이라도 있거들랑 고향으로 네가거라》고 애절한 호소속에 정든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시 《춘향과 리도령》, 《3월에도 삼짇날》, 《달맞이》에서는 빼앗긴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생활풍습과 구전설화에 의탁하여 흘러나오고있다.

1920년대 전반기 민족성을 구현한 진보적시문학의 사상정서적특징은 다음으로 일제식민지통치현실에 대한 강한 민족적울분과 항거정신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이 시기 진보적시문학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일제식민지통치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폭로비판하면서 일제에 대한 민족적울분과 항거의식을 잘 반영하였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하늘과 땅을 가르지 못할 이 어두움
그리고 강철로 벽을 하고
소리의 반향조차 없는 이곳
넌은 아는지?
내 이런 곳에 있는것을
...

시 《나의 애원》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변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현대판노예가 되어 《강철로 벽을 하고 소리의 반향조차 없》는 숨막히는 암흑속에서 고통을 겪는 비분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야만성과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을 토로하고있다.

시 《술방울 따는 아나네》, 《해빛 못 보는 사람들》, 《단장구제》에서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수탈에 시달리는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뜨거운 동정속에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일제식민지통치현실에 대한 부정과 울분을 토로하고있다.

이 시기 진보적시문학은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수난의 현실을 사실주의적관점에서 재현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가난하고 눈물겨운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그러한 불합리를 낳은 식민지착취사회의 반인민적본질을 폭로비판하는데로 사상정서를 지향시켰다.

《단장구제》에 속한 9개의 단시들중에서 《락엽끓는 로인》, 《가을의 아픔》, 《알수 없는 상징》, 《첫추위》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인민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체현한 시적대상에 초점을 박고 그들의 참혹한 처지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부정비판하고있다.

시에서는 가난에 대한 설음, 착취에 대한 울분만이 아닌 나라를 빼앗긴탓에 제땅에서 살면서도 《무너진 성밑에 허리 꺾인 묵은 나무 듂성듬성》 서있는 《시가의 한구석》에 쫓겨가 《결방살이》를 하여야 하는 비통한 민족적감정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일제식민지통치현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설음이고 울분인것이다.

시 《통곡》, 《가장 비통한 기록》,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머리둘 곳은 어디》에서도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항거정신을 엿볼수 있다.

시 《가장 비통한 기록》은 망국노가 되어 정든 고향,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살길을 찾아 이역땅으로 쫓겨가는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하면서 민족적울분과 항거정신을 토로하고있다.

아 가도다 가도다 쫓겨가도다
잇음속에 있는 간도와 료동별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쫓겨가도다
진흙을 밥으로 햇채를 마셔도
마구나 가졌다면 단잠은 엽떨것을
차라리 죽은 목숨 뺏아가거라!

...

시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여기서는 단순한 부정과 비판, 애절하고 연약한 슬픔과 한탄의 정서가 아니라 참을수 없는 울분이 차넘치고있으며 또 항거의식을 엿볼수 있다. 나서자란 고향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살아온 땅을 떠나 《잇음속에 있는 간도와 료동별》로 《주린 목숨을 움켜쥐고 쫓겨가》고있는 가슴터지는 정경, 여기에는 단순한 계급적착취와 생활적고통을 초월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살길을 찾을래야 찾을수 없었던 당시의 민족수난의 가슴아픈 진실이 있고 북받치는 항거의식이 깔려있는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 진보적시문학은 일제식민지통치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민족적설음과 울분, 항거의 감정을 잘 반영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 진보적시문학은 민족자주의식과 반일의식을 투철하게 반영하지 못한것, 전반적으로 볼 때 감정정서의 색채가 어둡고 비관적인것, 일부 작품들에서 종교적이며 주관주의적인 요소들을 안고있는것 등 그 사상정서에서 일련의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기 진보적시문학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도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과 뜨거운 향토애, 민족수난의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항거정신 등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과 민족적감정을 잘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학유산으로 된다.